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결의문

1.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현장 체험학습을 1년에 최소 1회, '소풍'은 2회를 보장해 주세요.
2.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쉬는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3.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해 주세요.
4. 필기시험이 많은 주에는 1주일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5. 모든 지역에 초등 아동들이 일정 기간 직업인에게 직접 진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주세요.
6. 보건복지부는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7. 모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8. 정부는 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 동아리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9. 정부는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가 낮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세요.
10. 교육부는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을 위한 하교 후 Wee클래스 대면 운영을 해주세요.
11. 교육부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을 개선하고 홍보해 주세요.
12. 「진로와 직업」 교과 교육 과정 취지 실현을 위한 세부 활동 평가 계획 수립 및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13.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충분한 예고와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와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14. 교육부에서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소그룹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세요.

제23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결의문 제안 이유

1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현장 체험학습을 1년에 최소 1회, '소풍'은 2회를 보장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으로는 부족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적음
- 제대로 된 현장 체험학습 없이 작은 행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참고]

서울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실시 및 계획 현황(출처: 김문수의원실. 2026)
2023년 598개교 → 2026년 156개교

■ 개선방안

- '현장 체험학습'과 '소풍' 구분 : 학교에서 가까운 곳, 흔히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건 '현장 체험학습'이 아니다.
- 현장 체험학습과 소풍을 가는 횟수의 최소 단위 제안 : 우리는 1년 중에 '현장 체험학습 1회, 소풍 2회'를 보장받고 싶다.

■ 기대효과

- 1년에 2회, 활동 방식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가벼운 야외 활동이 현장 체험학습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구분이 명확해진다.
- 이 활동으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 시간과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 교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2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쉬는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대부분의 아동이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에 공감
- 현재 쉬는 시간인 10분이 너무 짧아서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움
- 이전 수업 시간에 쌓인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음
- 쉬는 시간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 또한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움

■ 개선방안

-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쉬는 시간 만족도 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쉬는 시간 만족도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의견과 함께 취합하여 쉬는 시간을 정하도록 한다.
- 설문조사를 할 때에 아동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설문에 응답해야 함을 안내한다.

■ 기대효과

-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
- 아동의 놀권리와 쉼권리가 보장된다.
- 수업 집중력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 UN 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된다.
- 아동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3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는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로 인해 어린 아동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고카페인 음료에 담배처럼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 과다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증 발급을 의무화하고(교육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할 때 학생증을 확인하여 만 16세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 한다.

■ 기대효과

-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아동의 수가 감소한다.
- 카페인 과다 섭취의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 기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 보호자와 판매자의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여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다.
-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필기시험이 많은 주에는 1주일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특정한 날에 수행평가나 지필평가가 너무 많으면 전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아 부담이 됨
- 피곤한 상황에서는 집중력과 학습 효율성이 떨어짐
- 시험을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개선방안

-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주에는 하루에 보는 평가가 다른 날에 비해 너무 많은 날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필기시험을 보는 날짜의 조정을 통해 하루에 너무 많은 평가를 보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하루에 보는 필기시험을 최대 3개까지만 제한하고 3개를 넘으면 다른 날짜로 옮겨서 하루에 너무 많은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를 보지 않도록 한다.

■ 기대효과

- 하루에 공부해야 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학업 부담 문제가 줄고 압박감을 덜 받는다.
-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베풀어주기하는 것보다 조금씩 공부하고 일찍 잠에 들 수 있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5

모든 지역에 초등 아동들이 일정 기간 직업인에게 직접 진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형식적인 진로 교육과 학습으로 아동들은 진로 교육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초등학교와 지역별로 진로 교육의 편차가 심함

[참고]

① 진로교육법 제12조 등

② “초등학교 시기가 자아나 일과 직업의 기본 개념이 형성되고, 진로의사결정 능력이 형성되는 등 진로 발달이 이뤄지는 최초의 시기”(출처 : 김용기. (2022).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P지역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방과후학교연구, 9(2), 43-59.)

■ 개선방안

-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일정 기간 직업인에게 직접 진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언제 : 1년에 N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짐
- 어디서 : 학교. 만약, 사업 방향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시행
- 누가 : 정부(교육부)가 초등 아동들에게
- 무엇을 : 탐구형 프로젝트식 진로 교육을! (탐구형 진로 교육이란, 직업인이 (학교에) 와서 주기적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이를 탐구하는 것임)
- 어떻게 : 한 분야에 전문 기술과 지식을 지닌 강사(직업인)가 직접 수도권 및 지방 곳곳의 학교에 가서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
- 왜 : 아동이 보다 비차별적인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 기대효과

- 지역별 교육 격차가 감소한다.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준다.
- 진로를 어린 나이부터 통찰하며 자신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배울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진급 시 자신의 희망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6

보건복지부는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만들어 운영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어른보다 아동이 움직이지 않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11~17세 청소년 운동 부족 비율은 남자 91%, 여자 97%(18세 이상 성인의 운동 부족 비율은 남자 30%, 여자 41%)로 146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 (출처: WHO 2022년 한국 자료)
- 유사한 앱은 이미 있지만, 아동은 대부분 쓸 수 없음

[참고]

- 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이하 운영 기관) : 만 20세 이상. 걸으면 포인트 지급. 연 최대 12만 원어치
- ② 손목닥터9988(서울시) : 만 18세 이상. 하루 8,000보당 100포인트, 최대 10만 포인트 지급.
- ③ 탄소중립포인트(환경부) : 만 17세 이상
- ④ 스포츠강좌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 : 만 5~18세(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만, 연 12만 명 한정). 월 10만 5,000원 지원

■ 개선방안

-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운영한다.

-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특징 : 아동 친화적인 디자인, 쉬운 용어
- 포인트를 얻는 방법 : 앱 카메라로 운동 따라하며 인증, 걸음 수, 앱 출석 일수, 체육 시설 이용 내역, 러닝코스 태그 → 코스 완료 시에 포인트
- 포인트로 지급받는 것 : 체육관 이용권, 청소년 센터 시설 이용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기프티콘, 지역화폐, 생필품, 학용품, 아동건강용품 등

- 실물 포인트 카드 발급으로, 휴대폰 없이도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스마트폰이 있는 아동만 혜택 보는 문제를 막음)

- 카드로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면 포인트 자동 적립
- 이용 내역 시설 및 프로그램 : 공공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개방 체육시설, 수영·축구·농구 등 아동 체육 학원, 지역 스포츠클럽, 태권도장, 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체육 프로그램 등

■ 기대효과

- 아동 체력 및 건강이 증진된다.
-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 아동 운동량이 증가한다.
- 아동이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에 동기를 얻는다.
- 휴대폰 소유 여부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7

모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현재의 마음건강 지원은 지면(온라인 설문) 검사 후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방식으로 진행됨. 이 과정에서 상담이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을 가리기 어렵고, '낙인감'으로 상담을 거부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
- 상담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음. 게임이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성적 불안과 입시 부담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사라지게 만들지 못함
-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상담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아동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 (학교 정규 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동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 ①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전년보다 5%p 증가하며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또한 13~18세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성적·적성)'로 나타남 (출처: 교육부·질병관리청. (2024).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② 긍정심리 집단상담을 실시한 집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 증상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 확인 (출처: 장지희(2017), 「긍정심리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개선방안

- 모든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무상담제도)를 마련한다.
 - 누가 : 초중고교생 모두!
 - 언제 : 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 어떻게 :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활동 중 하나로
 - 후속 연계 : 학습 지도를 희망하는 아동은 상담 후 창체 활동 시간을 활용해 외부 기관과 연계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학교 밖 아동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 학업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해소할 수 있다.
- 진정한 '나'를 알아볼 수 있다.
-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상담에 대한 '낙인'을 완화할 수 있다.

8

정부는 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 동아리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학생들은 증가하는 학업량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학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활동 시간이 부족
-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치적인 활동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상황

[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초등 4~6학년 2,804명 대상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가 해야 할 일, 복수 응답)’ 설문조사 결과,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 보장(42.4%), ‘공부 부담 줄이기(42.0%)’ 순으로 (출처 : 신하영. (2026.05.04). “설 시간이 없어요”...초등생 10명 중 4명 학업 부담 토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58246645445640&mediaCodeNo=257>)

■ 개선방안

-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동아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학생들이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부와 학교는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학생이 동아리 활동 계획에 따라 스스로 정한 일정과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 학업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부족했던 학생 주도적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학생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여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교육 자원과 전문 인력이 대도시 · 학군지에 집중되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교육 격차를 객관적으로 비교 · 분석할 기준이 부족해 맞춤형 지원이 어려움
- 현재 예산은 학생 수 중심으로 배분되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지원이 부족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권고)에서 농촌 · 도시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 연수, 학교 인프라 개선, 교육예산 확대를 권고함

■ 개선방안

- 정부가 교육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전국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전문가 · 교원 · 교육청 · 학생 의견을 반영한 표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매년 학교별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학생 수와 교육 환경을 함께 고려해 예산을 지원한다.
- 지원 예산을 교원 확충,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교육시설 개선, 진로 · 체험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활용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

(예시)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 기준	평가 방법
· 교과 담당 교원 확보 수준 · 교육시설 및 디지털 교육 환경 보유 수준 · 진로 · 체험교육 운영 규모 · 지역 내 교육자원(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및 교육 성과	· 정부가 매년 전국 학교의 교원 확보, 교육시설, 디지털 환경, 진로 · 체험교육 등 교육 환경 자료를 조사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교육격차지수를 산출 · 같은 학교급 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를 100점 기준으로 상대평가(A~E등급) 실시 ·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 기대효과

- 학생 수가 아닌 실제 교육 환경을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 지역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 교육 격차를 지속적으로 관리 · 개선하여 UN 아동권리협약이 권고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학교 생활 시간 중에 Wee클래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놀림거리가 될 수 있음
-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Wee클래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자신이 놀림거리가 될 것 같아 불안감을 가져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Wee클래스에 갔다온 학생이 '우울증'이라고 친구들이 놀리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함. 이후 학생들이 Wee클래스에 상담을 하러 가는 빈도가 줄어들음
-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Wee클래스를 놀이공간처럼 놀러 가는 경우가 있어 상담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학생이 있음 (Wee클래스를 놀이공간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있음)

[참고]

손은정. (202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위(Wee)클래스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42(1), 469-492. <https://doi.org/10.33770/JEBD.42.1.18>

■ 개선방안

- 학교 생활 중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비교적 학생 수가 적은 하교 후에 상담을 진행한다.

■ 기대효과

- Wee클래스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이용 학생 수가 전보다 많아져서 이용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11

교육부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을 개선하고 홍보해 주세요.

※ 라임(LIME) :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과 학생을 위한 모바일 기반 24시간 365일 무료 심리 상담 및 마음 건강 관리 채널(앱)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라임 이용 시, 상담원의 부족으로 아동이 상담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이로 인해 24시간 상담 운영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아동이 원할 때 상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라임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려는 아동이 앱 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라임이라는 체계화된 상담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아동이 많은 상황. 이 때문에 Wee클래스 방문 등 대면 상담을 부담스러워해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아동들은 그 기회를 갖지 못함
- 채팅 상담이 어려운 장애 아동은 상담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

■ 개선방안

- 현재 라임 상담을 위해 청소년 전문 상담사 65명을 선발한 상황이나, 이는 수많은 아동의 상담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이 원할 때 최소한의 기다림으로 상담원과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원 수를 늘려야 한다.
- 라임 앱 접속 시, 아동이 라임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상당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라임 설명창’을 추가해, 띄워 준다.
- 아동 참여 ‘라임 홍보하기’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을 선발해 인스타, 카카오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학교에서는 유인물 배포와 Wee클래스 이벤트를 통해 라임을 홍보한다.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상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팅 상담뿐만 아니라 화상 상담, 음성 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 기대효과

- ‘라임 설명창’을 통해 아동은 앱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모든 아동의 상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마음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우리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될 수 있다.
- 홍보를 통해서 많은 아동들이 라임이라는 앱을 알게 되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 가끔씩 이용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중학교에 개설된 「진로와 직업」은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 성적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고민하도록 돕기보다는 성적과 학업 성취를 강조하여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높이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와 직업」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현재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이어 나가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 취지에 맞지 않음. 「진로와 직업」은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도록 돕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수업보다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개선해야 함

[참고]

- ① 진로교육법,
- ②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5). [2025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부.

■ 개선방안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를 파악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실습형 수업을 연간 일정 횟수 이상 운영하도록 세부 활동 평가 계획에 포함한다.
- 실습형 진로 체험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수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기대효과

- 실습형 진로 체험 수업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가 수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진로 체험 수업에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실질적인 진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 중심의 진로 선택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충분한 예고와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와 통합 안내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교육 정책이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
 - 교육 정책의 변경 내용이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발생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불안
- 예) 광주 전면 서답형 평가 검토 &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반복,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 개선방안

- 교육 정책 사전예고제를 확대한다.
-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다.

(예) <정책 적용 학생 참여 보장제>

주요 내용:

- 학생의 입시, 내신 및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위원회에는 실제 적용 대상 학생을 반드시 포함한다.
- ① 정책 적용 대상 학생을 공식위원이나 토론자로 위촉
- ② 학생·청소년이 전체 의견 수렴 참여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
- ③ 중학생, 일반고, 특성화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장애 학생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
- ④ 공청회에서 학생의 현장·사전·온라인 질문을 접수
- ⑤ 학생 의견별 수용·부분수용·불수용 결과와 이유 공개 등
- 학생에게 단순히 방청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정책 결정의 공식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 통일된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 방안]

- 교육부는 모든 중요 교육 정책에 대해 하나의 표준 안내자료를 공동으로 제작
- 표준자료에는 ① 정책 변경의 이유 ②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 ③ 학생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가정통신문 등)으로 전달
- 학교와 교사는 공식 표준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예상은 확정된 정책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학생 맞춤형 ‘나의 교육정책 포털’을 도입한다.

[구체적 방안]

- 현재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학과·전형을 검색할 수 있음. 교육 과정부터 내신, 수능 및 대학별 전형의 변경 사항을 학생 개인의 학년에 맞추어 한번에 보여주는 기능은 제한적임. 같은 정책이라도 학생의 입학연도와 졸업연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름. 학생이 자신의 학년과 희망 대학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해석해야 하므로 정보 탐색 자체가 추가적인 학업 부담이 됨. 그러므로 ① 학생이 현재 학년 ② 학교 유형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만 보여주는 공식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 내용 예시) ① 자신에게 적용되는 확정 정책 ②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 ③ 이전 제도와 달라진 내용 등

■ 기대효과

- 학생이 제도 변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입시 준비의 혼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 학생의 실제 경험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현장에 적합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 잘못된 정보와 학교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학생이 정책의 확정 여부와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복잡한 교육·입시 정보를 학생별로 쉽게 제공하여 정보 탐색의 부담과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 현 상황과 문제점(제안 배경)

- 개인별 학습 수준의 차이 발생. 이해도는 낮고,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
- 기존 방과후 수업 : 이론 위주의 수업 진행, 참여율이 낮은 경우 많음
- 사교육비가 높아 취약계층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움

■ 개선방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점심 또는 방과후 등 남는 시간에 교내 유휴 공간에서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
- 보충 수업을 원하는 중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면, 담당 과목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한다.

- 실제 참고 사례 :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도전학교'
- 관련 기사 : 최훈, 「전북자치도교육청, 학력신장 도전학교 설명회 가져...2025년 맞춤형 학습지원 가동!」, 전북소비자저널, 2025.03.27. <https://www.jbcj.kr/news/articleView.html?idxno=66365>.

■ 기대효과

-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 공교육에 초점을 맞춰, 사교육 과열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 부족한 교과목을 보완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준다
- 시가 아닌 대면 수업을 통해 (교사의 지도 경험 등에서 나온) 노하우(독특한 비결)를 학습할 수 있다.